

산재보험, 더 쉬워져야 더 많-이 품는다!

2022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Contents

4 —————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며**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개요와 성과	6
지원사업 소개	8
산재노동자 지원	12
산재노동자 지원 소개	12
그림으로 보는 산재노동자 지원	16
콘텐츠 제작	25
삼우실 인스타툰 산재보험 3부작	25
산재, 그후 5부작 영상	32
산재보험 매거진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	36
연구	42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42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	46
2. 지원사업 이후의 과제	48
함께 만든 변화 - 더 넓게, 더 많이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향해	50
산재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 산재노동자 지원기관 집담회	54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 - 지원사업 이후의 과제 : 김명희 집행위원장 인터뷰	62

3. 지원사업 스토리	66
언론 속 지원사업	68
김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 어업노동자 취재기	70
산재노동자 전화 인터뷰	78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1기를 마치며 : 이상윤 대표 인터뷰	86
92 ————— 지원사업의 의미와 제언	

B. 부록 한국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현황	93
2011 - 2020 산업재해 통계	96
산재보험 바깥의 노동자들	89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성과보고서를 발간하며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그 답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공장, 사무실, 가게, 식당 등 어디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제도’가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픔이 ‘산업재해’가 맞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노동자도 드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 답을 찾고, 우리가 찾아낸 답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본 성과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진행한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의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크게 산재노동자 지원, 콘텐츠 제작, 연구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각 분야 소개와 활동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책 속에 담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와 함께 고민할 동료 시민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개요와 성과

1. 지원사업 소개

2. 산재노동자 지원

3. 콘텐츠 제작

4. 연구

1. 지원사업 소개

산재보험 정책 현황 및 한계

1963년,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겪지만,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구 방지 방안 연구〉(2018)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42.4%입니다. 열 명 중 네 명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는 더 큰 규모의 사람들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제도가 있는데도 노동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 신청은 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해 이용할 수 없었던 노동자, 승인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 등 산재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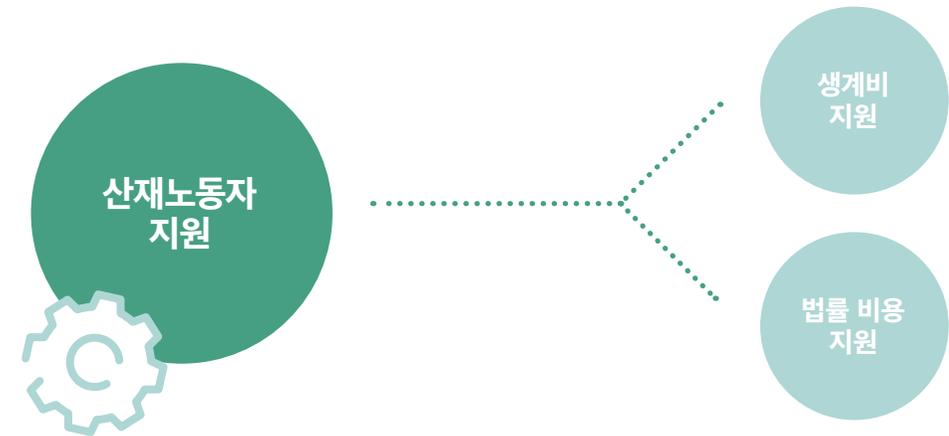
2019년,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노동자의 목소리로 '산재보상 사각지대'에서 겪는 구체적인 일들을 사회에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목적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노동자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경제적·의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 산재보상 및 재활체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사업 개요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은 크게 '산재노동자 지원', '연구', '콘텐츠 제작'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생계비 지원:**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과 생계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법률비용 지원:** 산업재해로 노무사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산재노동자에게 법률비용 지원

2019~2021 3년간 176명의 산재노동자 지원

총 지원금액 규모 116,300,000

- 요식업 노동자(상시노동자 5명 미만), 제조업 노동자(상시노동자 10명 미만), 돌봄노동자, 농어업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
- 산재보험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콘텐츠 제작

산재노동자 지원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산재보상 사각지대를 드러내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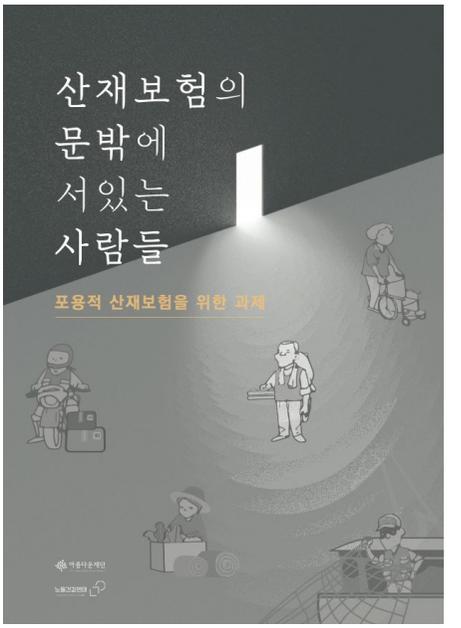
- 삼우실 인스타툰 산재보험 3부작 (2020)
- 나도 산재일까?!
산재냐 공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장님이 허락한 산재?
- 산재 그후 5부작 영상 (2020)
- 산재보험 매거진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 2종
- 산재보험, 왜 어려울까요? (2021)
- 산재보험, 왜 나는 안될까요? (2021)



연구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 일 때문에 병이 생긴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합니다.

- 연구보고서 2종 발간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2019)
- 산재보험의 문밖에서 서있는 사람들 :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2020)
- 이슈페이퍼 5종 발간 (2022)
- 연구에서 산재보상 취약집단으로 주목한 농업노동자, 어업노동자, 이동노동자,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5개 직종별 이슈페이퍼 발간



2. 산재노동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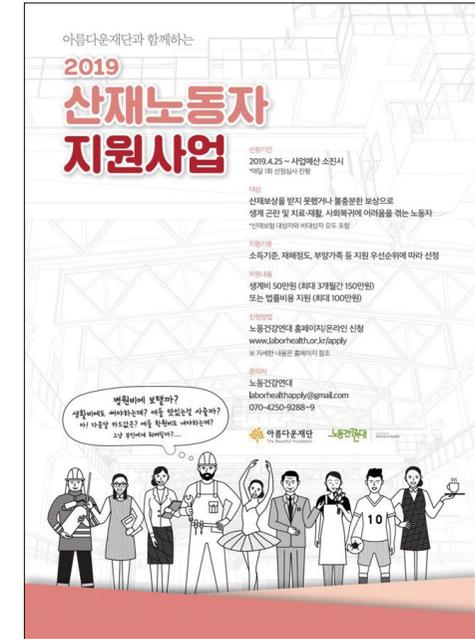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치료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76명의 노동자에게
116,300,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

연도	신청자 수	지원자 수
2019	91	66
2020	96	77
2021	85	33
총합	272	176

※ 2019년에는 생계비 지원과 함께 법률비용 지원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자 수 66명은 생계비 지원자와 법률 비용 지원자를 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9년 산재노동자 지원



지원대상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생계 곤란
및 치료·재활,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액
긴급 생계비 지원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과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50만원 (1개월에 1회 기준으로 최대 3개월 간 150만원 지원)
법률비용 지원	산업재해로 노무사 및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산재노동자 에게 법률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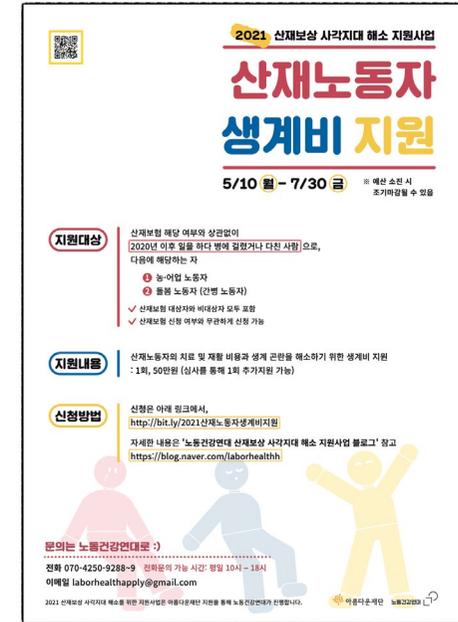
소득기준, 재해정도, 부양가족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020년 산재노동자 지원



- 지원대상** 2019년 이후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
①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노동자
②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요식업 노동자 및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거나 신청 예정인 노동자, 산재보험 종결 예정자 중 치료 및 재활이 불충분한 노동자
- 지원내용**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의 생계비 1회 50만원
- 심사기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매달 1회 심사
• 취약성(고용형태, 소득), 적절성(산재보험 연계 가능성 및 제도 개선 사례로 적절한지 여부 등), 긴급성 등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

2021년 산재노동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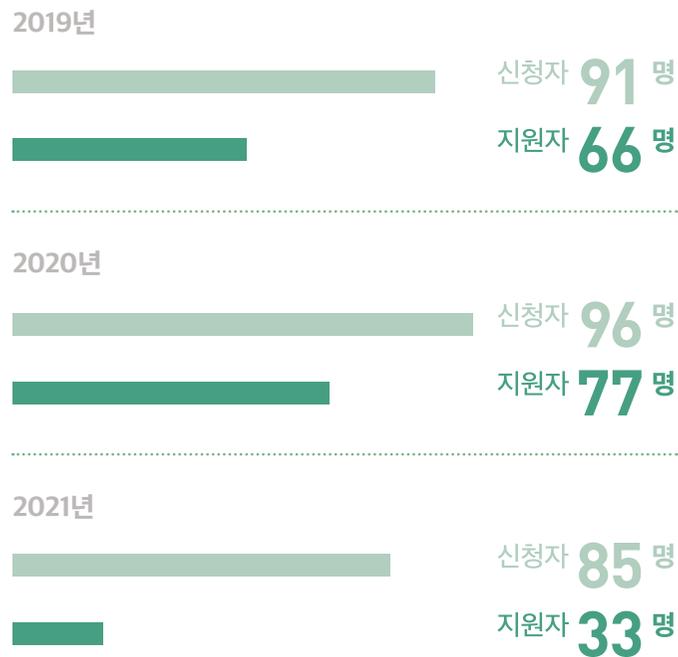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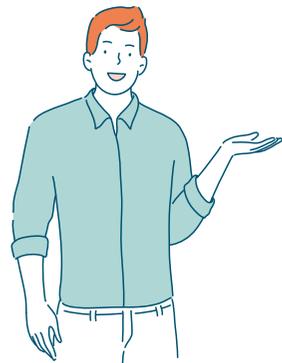


- 지원대상** 산재보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이후 일을 하다 병에 걸렸거나 다친 ① 농·어업노동자 또는 ② 돌봄노동자(간병노동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산재노동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과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 1회 50만원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1회 가능)
- 심사기준** 지원필요성, 소득기준, 재해정도, 산재보상 여부 등 심사위원회 (보건의료인 및 법률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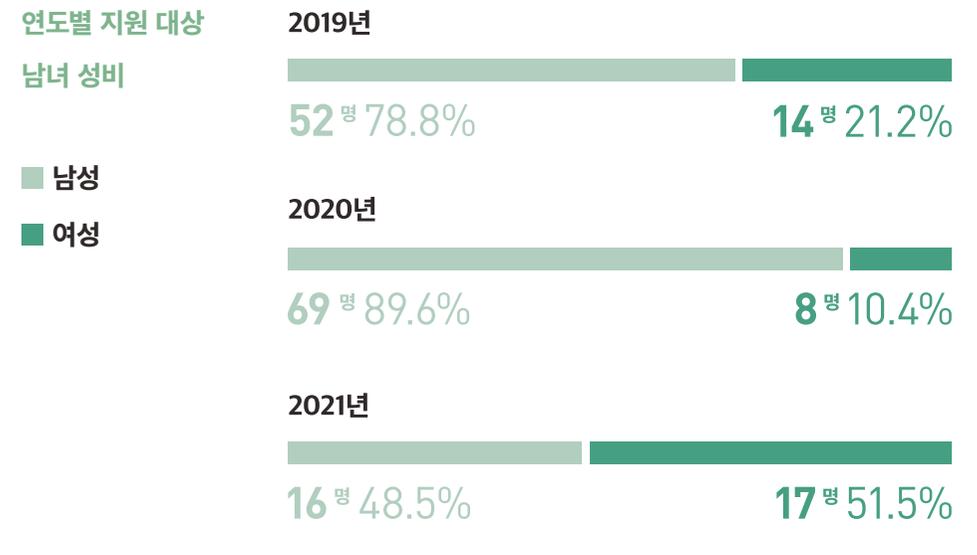
그림으로 보는 산재노동자 지원

연도별 지원 대상	2019년	2020년	2021년
	별도 제한 없음	-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제조업 노동자 -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요식업 노동자 및 사업주	- 농어업노동자 - 돌봄노동자

연도별 신청자/지원자 수	2019~21년 총 신청자 수	2019~21년 총 지원자 수
	272 명	176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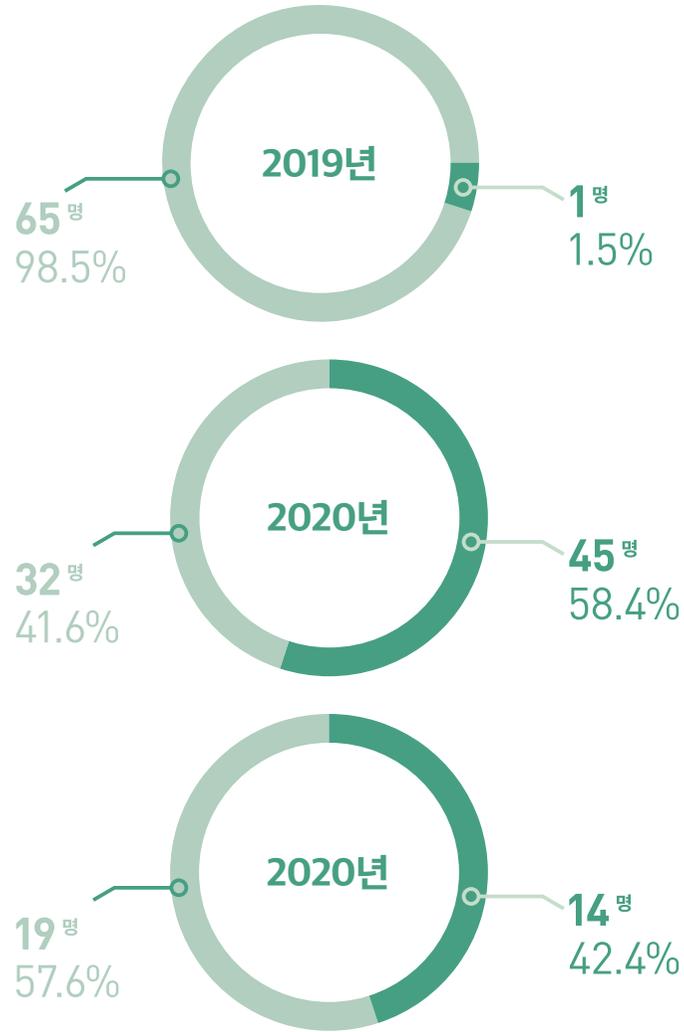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치료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76명의 노동자에게
116,300,000원의 생계비 및 법률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 지원 대상
이주 여부

■ 정주 노동자
■ 이주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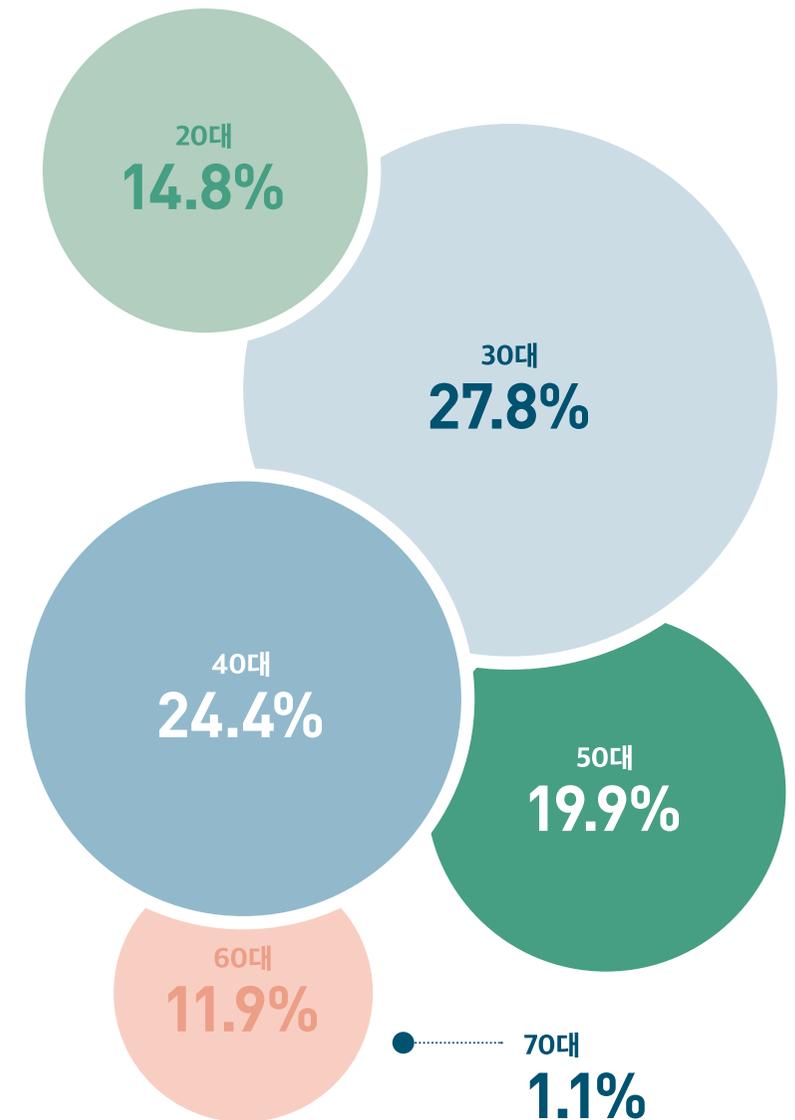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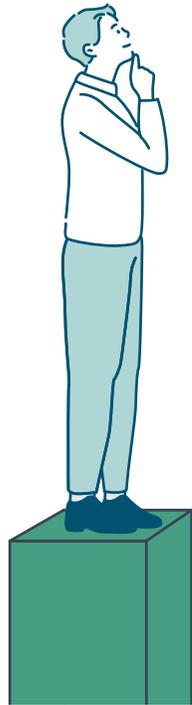
연도별 지원 대상
고용 형태

고용형태	2019년		2020년	
	명	%	명	%
정규직	40	60.6%	19	24.7%
계약직	11	16.7%	26	33.8%
일용직	9	13.6%	18	23.4%
파견/용역	5	7.6%	2	2.6%
기타	1	1.5%	2	2.6%
불분명	0	0.0%	1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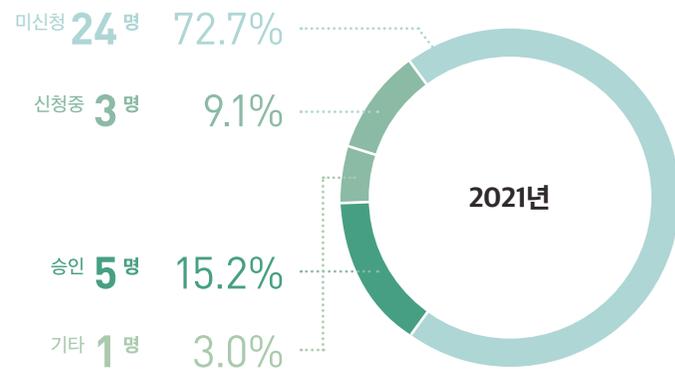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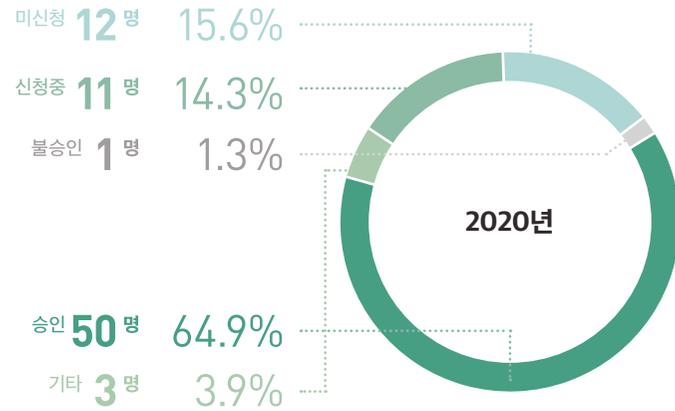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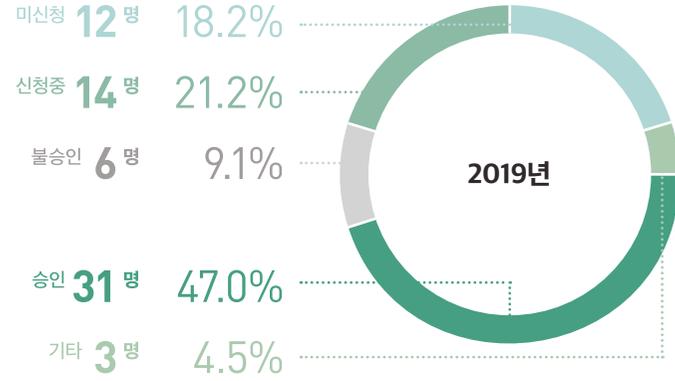
고용형태	2021년	
정규직	67명	38.1%
계약직	49명	27.8%
일용직	37명	21.0%
파견/용역	7명	4.0%
기타	3명	1.7%
불분명	13명	7.4%

전체 지원대상
연령 분포





연도별 지원 대상
산재보험 신청 비율



전체 지원대상
지역별 분포 비율

서울특별시 **22명 12.5%**

2019	12명
2020	6명
2021	4명

경기도 **41명 23.3%**

2019	15명
2020	16명
2021	10명

인천광역시 **8명 4.5%**

2019	8명
2020	-
2021	-

충남 **5명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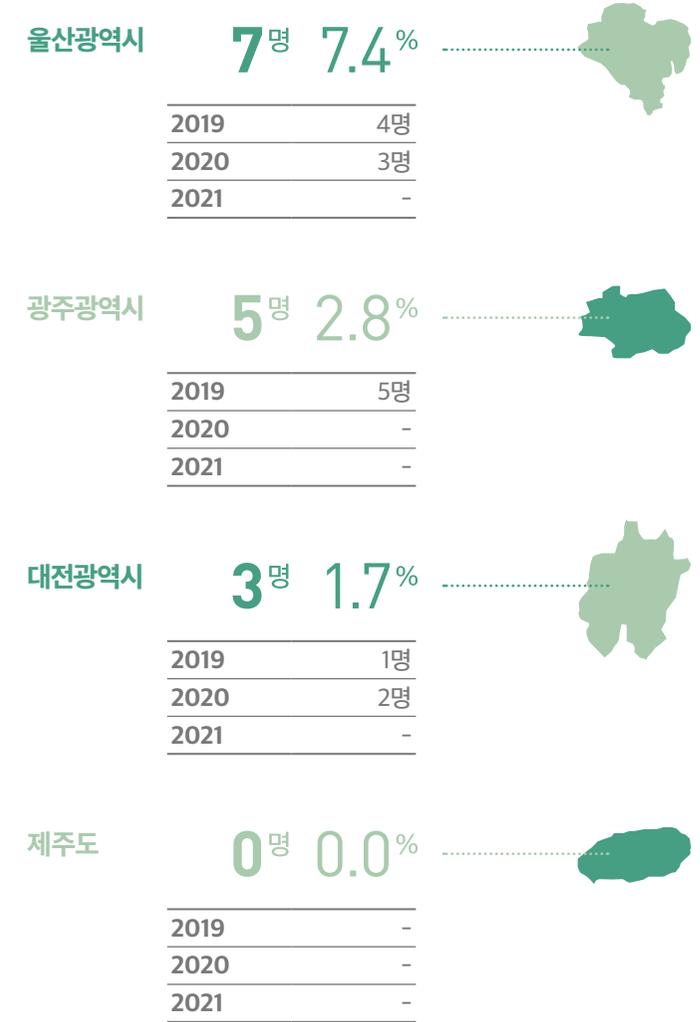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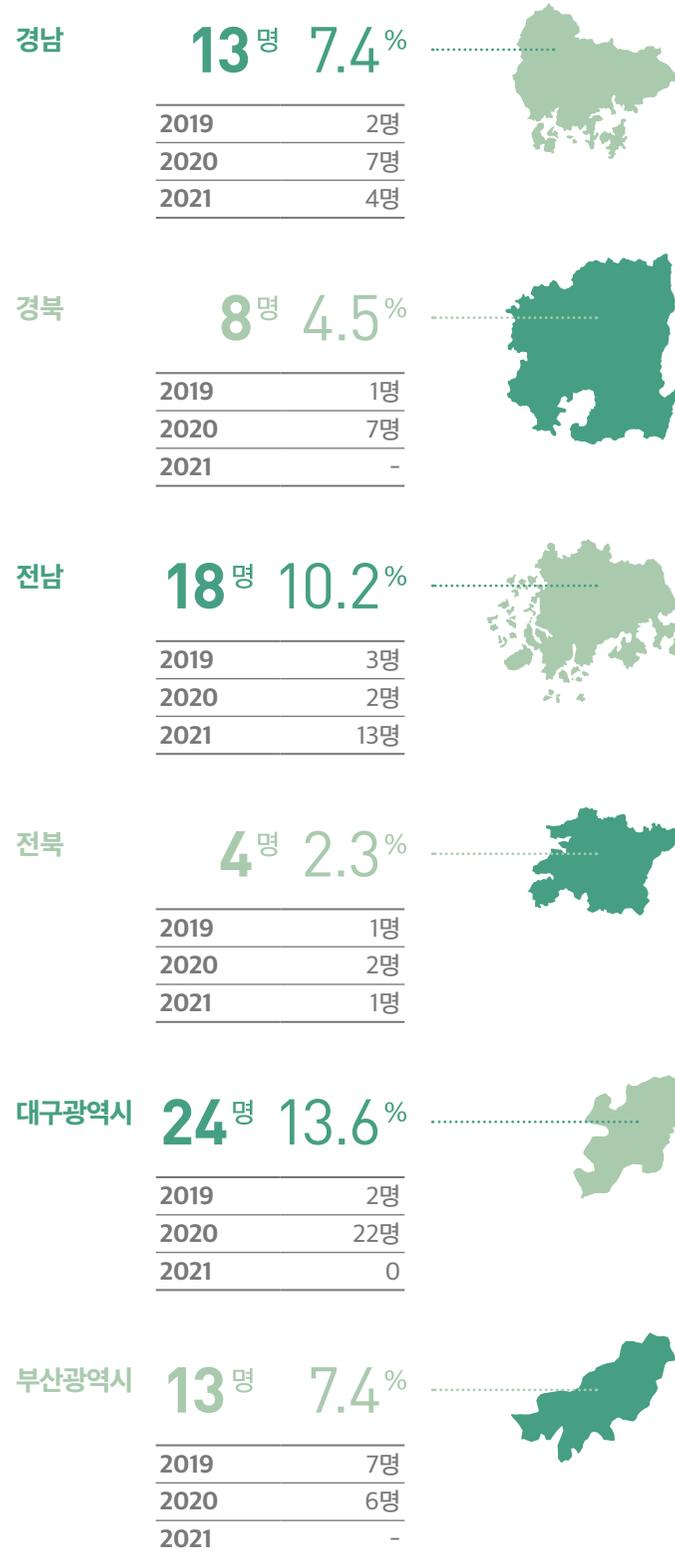
2019	2명
2020	2명
2021	1명

충북 **4명 2.3%**

2019	2명
2020	2명
2021	-

강원도 **1명 0.6%**

2019	1명
2020	-
2021	-



3. 콘텐츠 제작

만화로 풀어낸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 삼우실 인스타그램 산재보험 3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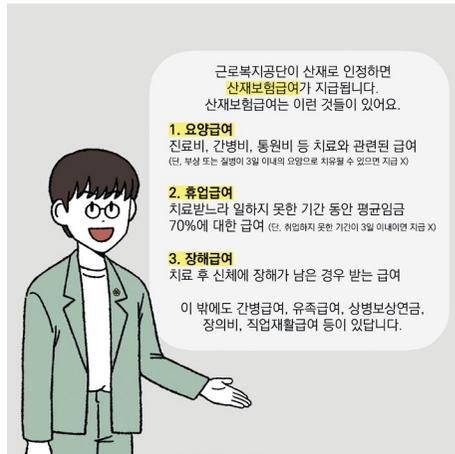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이라는 익숙하고도 어려운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에는 만화만한 콘텐츠가 없었고요. 그래서 만화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인스타툰 (인스타그램+웹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삼우실(@3woosil)과 인연이 닿게 되어 산재보험 3부작을 기획했습니다. 1편과 2편을 제작할 때 내용 관련 도움을 드리고, 3편에서는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직장인 팔로워가 많은 삼우실의 계정 특성을 고려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 재해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 보통의 노동자라는 점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1. 나도 산재일까?!

📅 2020년 12월 1일 업로드 👍 8,760 💬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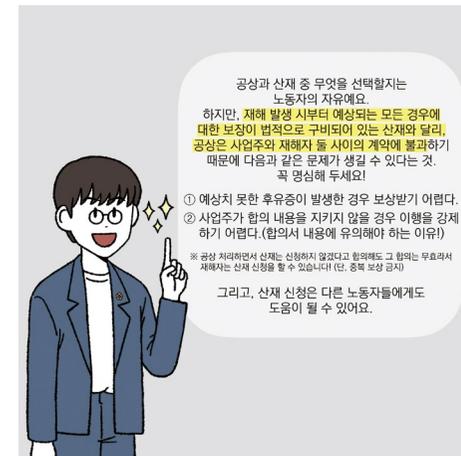


#2. 공상이나 산재냐, 그것이 문제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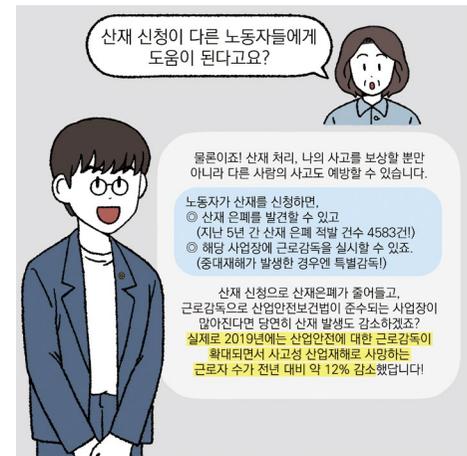
📅 2020년 12월 15일 업로드 👍 7,162 💬 44



사장님, 산재 처리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② 건설업이라면, 공사실적액이 60억 이하 또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30명 이상이라도
근로자들이 수급한 산재보험금 × 100 > 85% 인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이 이전 3년 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보험료가 인상되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 자세한 내용은 인근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공상과 산재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노동자의 자유예요. 하지만, 재해 발생 시부터 예상되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보장이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산재와 달리, 공상은 사업주와 재해자 둘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①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렵다.
 ② 사업주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 (합의서 내용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 공상 처리하면서 산재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합의해도 그 합의는 무효라서 재해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보상 금지)
 그리고, 산재 신청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산재 신청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물론이죠! 산재 처리, 나의 사고를 보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 산재 은폐를 발견할 수 있고 (지난 5년 간 산재 은폐 적발 건수 4583건!)
 ◎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엔 특별감독)
 산재 신청으로 산재은폐가 줄어들고,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는 사업장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산재 발생도 감소하겠죠?
실제로 2019년에는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이 확대되면서 사고성 산입제도로 시행하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습니다!

#3. 사장님이 허락한 산재?

📅 2020년 12월 29일 업로드 👍 7,162 💬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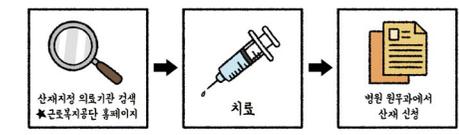
산재신청 안 돼? 왜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알바? 가능!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한편, 당근님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가입? 가능!
당연적용대상사업장이 노동자 신고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납부해 했던 보험료는 당연히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연체? 가능!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연체했어도, 노동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업장은 당근센터에서 확인해주세요~!



* 만약 치료받은 곳이 사립병원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TIP. 신청 전 **재해경위를 기록**해두면 원활한 접수가 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노동권광연대

3. 콘텐츠 제작

영상으로 풀어낸 산재노동자 이야기

- 산재, 그후 5부작 영상

영상 감독 : 장호경

일러스트 제작 : 덕분

인스타툰에서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했다면, '산재, 그후' 5부작 영상에서는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산업재해를 겪을 수 있지만, 재해의 결과는 다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갖은 절차적 불편을 겪은 뒤에 일상을 되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기도 하지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인데 회복과정은 왜 저마다 다른지, 노동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는지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산재 그후

YouTube 에서
'산재 그후'를 검색하세요!

“ 산재보험,
더 쉬워져야 더 많이 품을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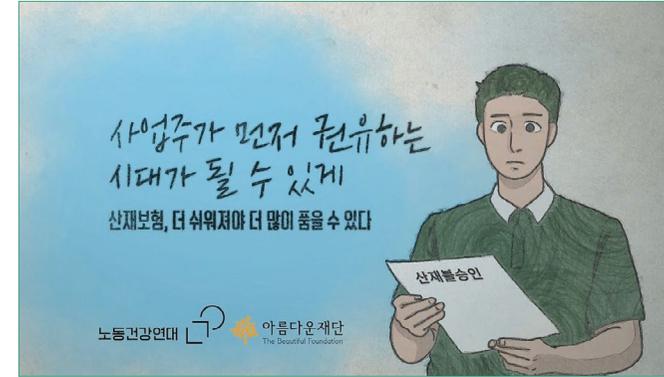
산업재해를 겪은 뒤, 산재보상 신청을 마음 먹은 주인공. 그런데 복잡한 신청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류작성, 증거수집, 현장점검까지. 노동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하니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은 병원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데, 산재보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재보상 신청을 방해하는 회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주인공.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해고하겠다는 회사의 협박.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에게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개인이 회사에 맞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주인공은 다행히 노동인권 관련 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산재보상 신청을 마쳤지만, 모든 노동자가 이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인공은 한 사업장에서 두 번의 산업재해를 겪었습니다. 처음 일하다 다쳤을 땐 산재보상 신청도 못하고,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고, 회사는 공상처리를 강요하며 주인공을 몰아세웠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나서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지 걱정이 되어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주인공. 사고를 당한 주인공과 사업주의 진술이 달라서 산재보상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회사일로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다쳤는데, 왜 산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먼저 산재보험 정보를 알려주고, 나서서 신청을 도울 수는 없는 걸까요?



비가 내리는 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회사 탓에 사고를 당한 주인공. 공상 처리만 강요하는 회사와 씨름하며 산재보상 신청을 하고, 열심히 재활해서 다시 일상을 꾸려가고 있지만, 첫 발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가 그 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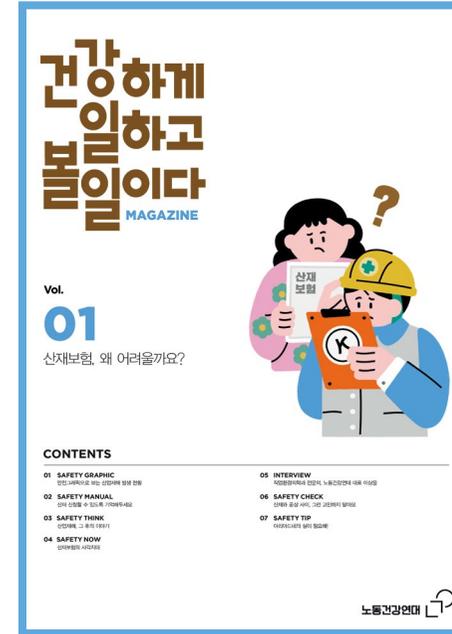
3. 콘텐츠 제작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 산재보험 매거진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



산재보험 매거진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에서는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소개를 넘어, 산재보험제도가 일하다 다친 노동자에게 어떻게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더 많은 아픈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1호 '산재보험, 왜 어려울까요?'는 4,000부, 2호 '산재보험, 왜 나는 안될까요?'는 2,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의 노동자 지원센터 및 노동자건강센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소속 병원,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속 한의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 약국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Vol. 01

산재보험, 왜 어려울까요? (2020)

- 01 안전그래픽으로 보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 02 산재신청할 수 있도록 기억해주세요
- 03 산업재해, 그 후의 이야기
- 04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05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을 만드는 방법
- 06 산재와 공상 사이, 그런 고민하지 말아요
- 07 아리아드네의 실이 필요해



Vol. 02

산재보험, 왜 나는 안될까요? (2020)

- 01 산재보험 바깥의 노동자
- 02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 03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 04 840만 명 중에 당신도 있나요?
- 05 산재보험, 모두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 06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 07 우리는 왜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나요?

일하다가 아프면 고민하지 말고

건강하게
일하고
돌아오는
일이야

산재 신청 할 수 있도록 기억해두세요

알바생
산재

퇴사 후
산재 신청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
VOL.01 산재보험, 왜 어려울까요?

알바는 산재보험 알바 아님?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청소년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청소년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도 근로 기간!



산재 기간도 근로 기간, 즉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마음까지 보살펴드려요



산재보험은 신체적인 부상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정신적인 질환(우울증 등)도 산재보험 대상이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일'



일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가다 다치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판단은 공단에게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여부를
1차로 판단하고, 만약 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특별해도 괜찮아요



프리랜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금을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컨서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
병원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관리사 등이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중 다친 게 맞다면 퇴직 이후에도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한다

누구나 예외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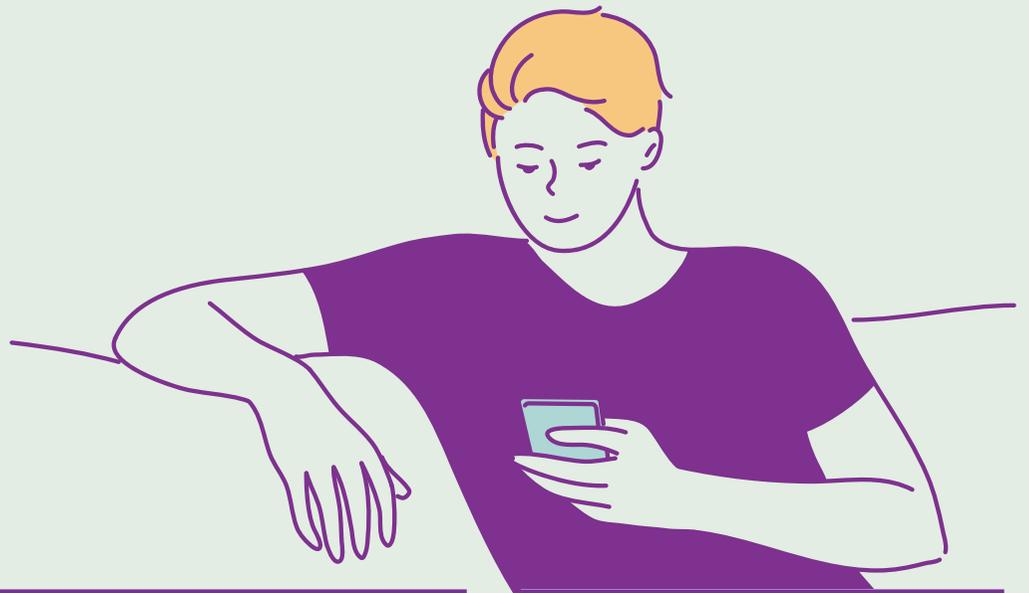
<건강하게 일하고 볼 일이다>
VOL.02 산재보험, 왜 나는 안될까요?

아름다운재단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건강연대와 오세이프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노동 형태가 등장하면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도 많습니다.

제도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가 지금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바꿔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름다운재단 × 노동건강연대 × ONLY SAFETY OSAFE



누가 봐도 멈춰야 하는 순간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쉴 수 있게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노동자의 실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시된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더 적은 보상을 받다보니, 아픈데도 일하게 됩니다. 보수액을 실제 임금에 맞게 산정해야 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만 보험료가 반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일체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회복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기준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바깥에 놓여있습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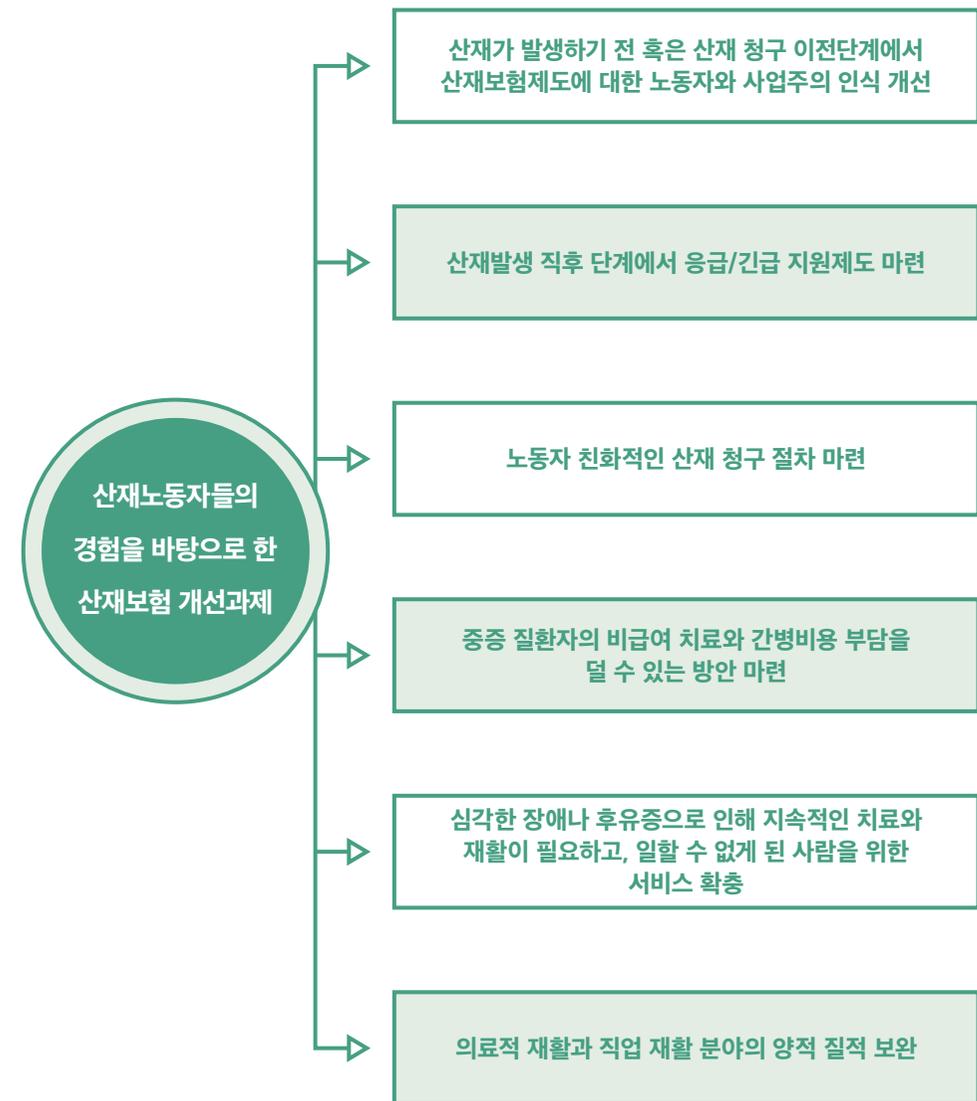
4. 연구사업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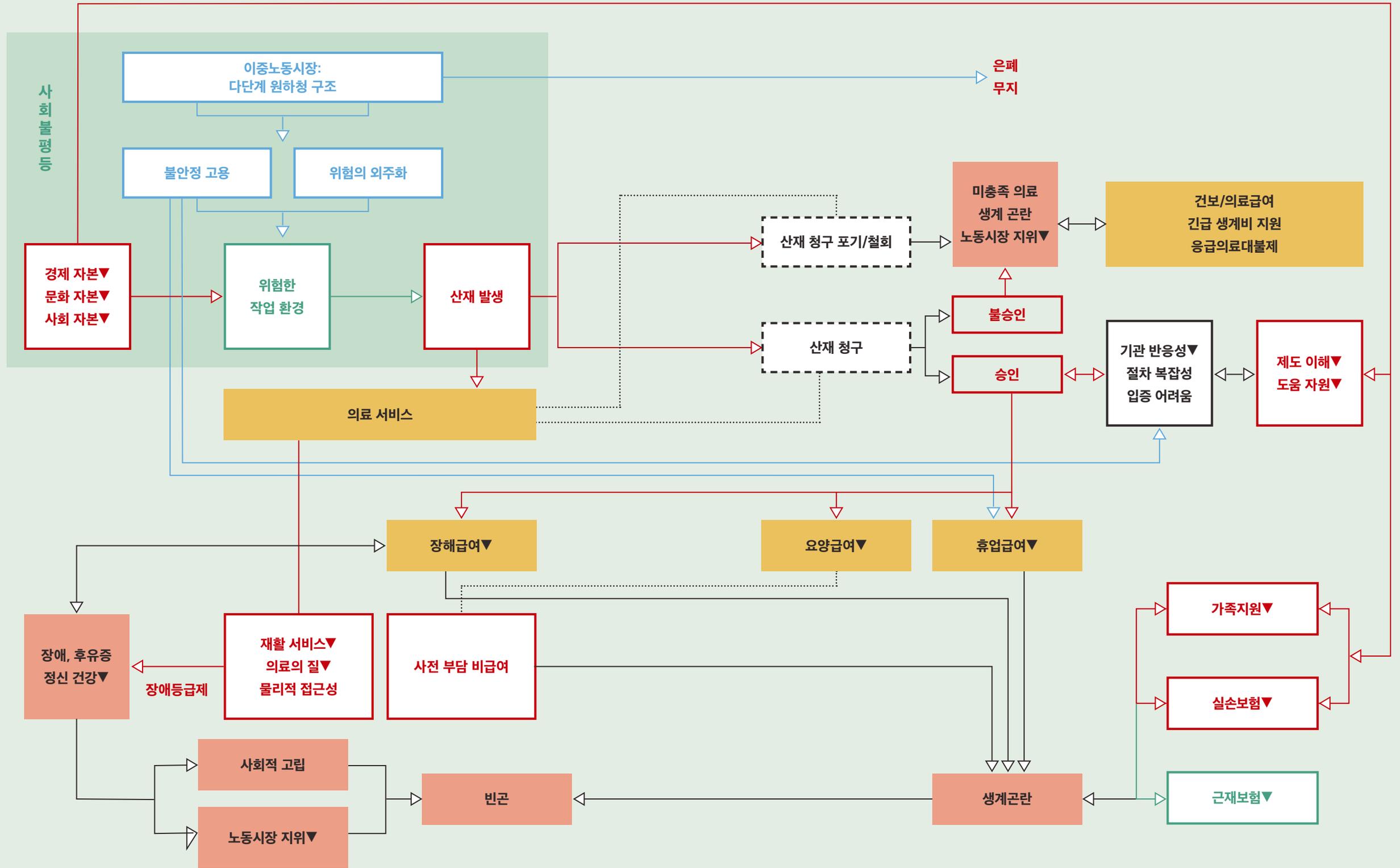


2019년 연구보고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다 포기한 사례들을 심층 조사함으로써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산재노동자 사례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직후 사고대응 시점부터 산재보험 청구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걸림돌에 직면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생계비와 의료비, 돌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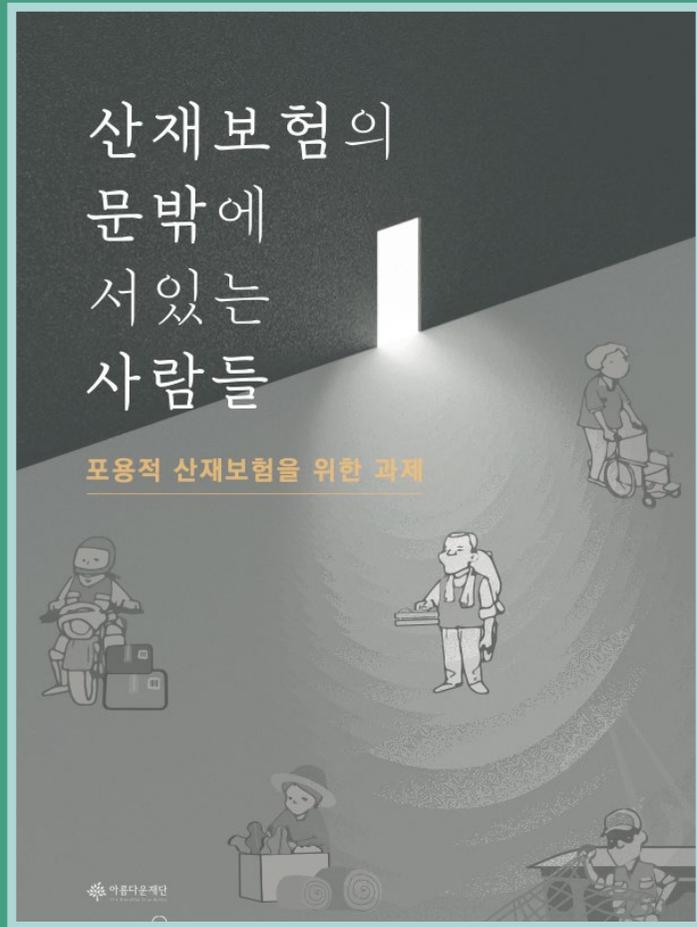


심층 면담을 통해 도출한 사회불평등과 산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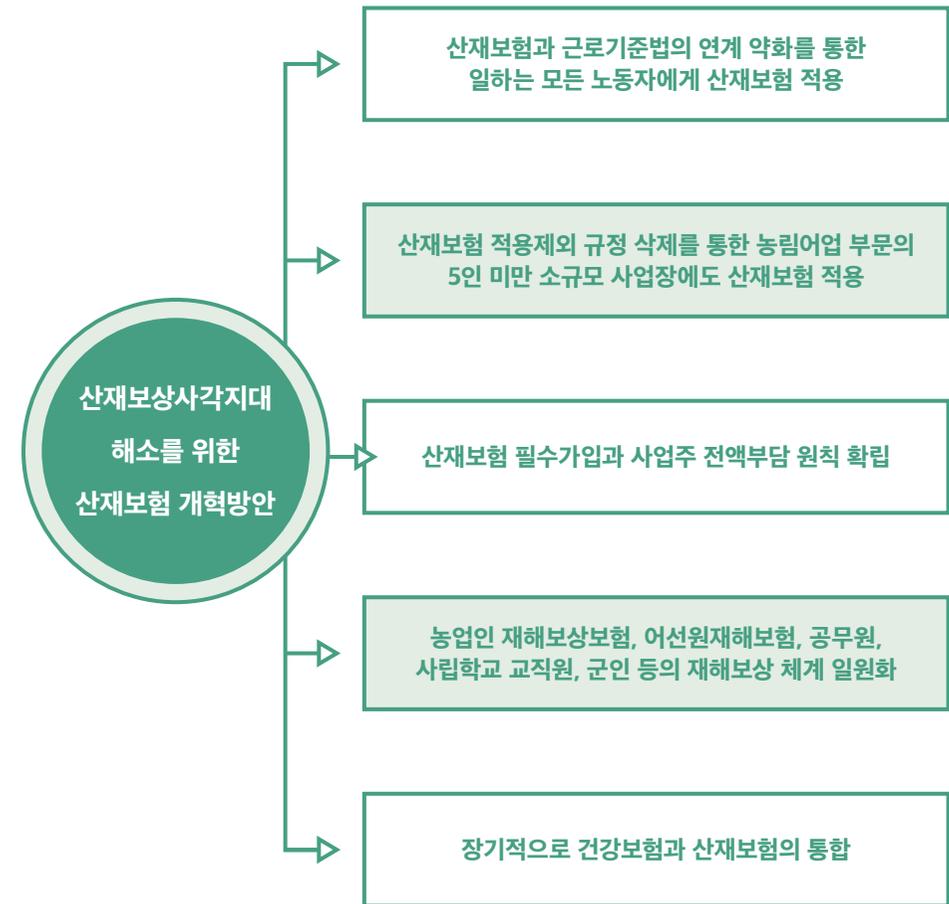
4. 연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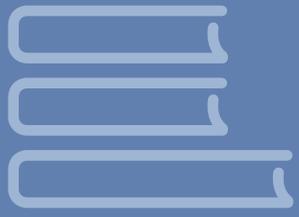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 :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2020)



2020년 산재보상사각지대해소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인 『산재보험의 문밖에 서있는 사람들』은 포용적 산재보험을 위한 과제라는 부제처럼 산재보험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이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던 이동, 돌봄, 농업, 어선원 노동자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의 산재보험제도가 가진 사각지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을 종합 하였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이르기 위한 장기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

지원사업 이후의 과제

1. 함께 만든 변화 - 더 넓게, 더 많이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향해

2. 산재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 산재노동자 지원기관 집담회

3.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 - 지원사업 이후의 과제

: 김명희 집행위원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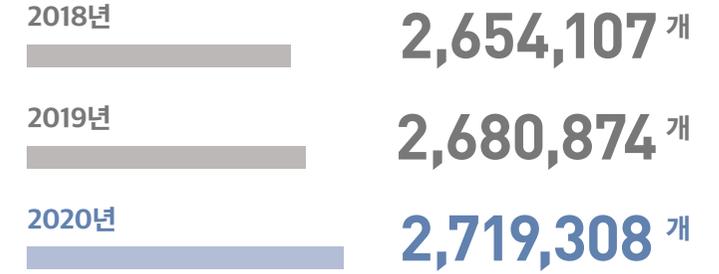
1. 함께 만든 변화

더 넓게, 더 많이 보장하는 산재보험을 향해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수 증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에 2,654,107개였던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2019년에는
2,680,874개, 2020년에는 2,719,308개로 늘어났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포기
하는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 적용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악용
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적용제외신청제도'가 2021년
7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2019년에는 9개였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2020년에는 14개로, 2021년에는 15개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택배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전속 대리운전기사
	+ 방문강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산재노동자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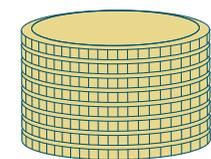
지자체 및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부터 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꾸러졌습니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산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결과입니다.

기관	서울시 녹색병원
지원사업명	산재, 직업병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안전망 병원(2018~)
사업내용	업무상 사고와 질병 무료치료 사업

기관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 이웃
지원사업명	2019 시흥안산산재노동자 생활비, 법률지원 사업
사업내용	산업재해를 입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비 및 법률비용 지원

기관	서울시
지원사업명	2019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사업내용	근로취약계층 중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비 및 지원

기관	사단법인 희망씨
지원사업명	2021 산재노동자가족 긴급지원사업
사업내용	산재사망 및 산재노동자 가족 심리치료 및 생활비 지원



2. 산재노동자를 지원하는 사람들

산재노동자 지원 기관 집담회

처음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 '시민사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아켜보면 이 사업은 공공 외 영역에서 산재 노동자에게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은 왜 필요할까요? 산재노동자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산재노동자 지원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녹색병원과 사단법인 희망씨와 만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산재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결과로 설립된 민간형 공익병원. 2003년 설립 이후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취약계층 노동자 의료지원사업(2021)
- 플랫폼 노동자 건강돌봄사업(2021)



희망연대노동조합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2014년에 함께 설립한 법인.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주로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산재노동자 가족 지원사업(2021)



Q.

정우준: 두 기관에 찾아가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만났던 산재 노동자들이 주로 호소한 어려움 또는 필요하다고 말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김은선[희망씨]: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제도적인 어려움이죠. 이게 산재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사망하신 경우 일 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과로 자살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산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산재 신청을 어떻게 하지?', 산재로 인정받았다 해도 '급여가 불충분해' 이런 거요. 저희가 만났던 가족 중에 통신 노동자로 일하다가 감전 사고가 일어나서 양팔을 절단한 분이 계셨어요. 혼자서는 음료수 캔 하나를 따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항상 옆에 붙어있어야 해서 배우자도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재보험으로 지원

되는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의수 중에서도 (손목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건 본인 부담금이 크니까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 '위기 가족 지원 사업', '긴급 지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 제도가 전부 '중위소득 몇 프로 이하'일 경우에만 된다는 거죠. 대부분 경제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산재를 겪으니까 집이 있기도 하고, 자동차가 있기도 하단 말이죠. 배우자가 산재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소득 기준 때문에 복지 제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제일 많아요.

송재형[녹색병원]: 대부분 좋은 대기업은 기업 복지 제도가 있어서 유급 병가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는 기업 복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본인한테 들어와요. 제도적으로 딱 하나 있는 게 산재 보험제도인데, 거기서 안 되면 치료비랑 생계비가 고스란히 100%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 많이 나아지실 분들도 있는데 말이죠.

Q.

정우준: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상담 전화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상담하시거나 노동자들을 만날 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김호규[희망씨]: '잘 모른다'는 게 제일 컸죠. 아무리 신청서를 바탕으로 상담한다고 해도, 신청서로 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구체적인 가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있으니까요.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판단하기가 힘들었죠. 산업재해 관련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게 산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산재노동자 가족 지원 사업 이니까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들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김호규[희망씨]: 상담하면서 정말 제일 어려웠던 건, 신청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시는 분들이었어요. 정보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신청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한글 문서로 신청서를 받았는데, 사실 한글이나 워드만 돼도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사용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거죠. 주변에 도움을 청했을 때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고요. 그 부분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개인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웠어요.



김은선[희망씨]: 김호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점 외에 어려웠던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진행해보니,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적절하게 기관과 연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족 중에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심리치료를 연결해드렸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 멀어서 못 가시더라고요. 결국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 지역망을 좀 만들어서 빨리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사회 복지망으로 안내할 분들은 안내하고, 우리 망으로 연계할 분들은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민간,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재정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어려움이 컸어요. 내년 사업을 기획하면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Q.

정우준:
민간이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은선[희망씨]: 우선, 아무래도 관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도 자꾸 만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반면에 민간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민간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렇기에 관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굉장히 필요해요. 거기에 보통의 사람들이 담기고, 담기지 못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선 민간이 채워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산재 승인 여부를 떠나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만져주는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는 가족들의 삶을 챙기는 것도 관이 해야겠지만, 산재 가족들을 처음 만나면 마음을 다 터놓지 않거든요. 믿어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확인하고,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산재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세요.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런 게 아닐까요. 꼭 경제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보단 '내가 힘들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아들이 자살했어'라는 말을 누구한테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했을 때 돌아올 주변의 시선이 있으니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민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Q.

정우준:
저희한테 오셔도 드릴 수 있는 도움이 한정적 이니까 다른 곳과 연계 하면 좋을텐데 말이 에요. 희망씨와 녹색 병원에서 는 민간과 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김은선[희망씨]: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교육복지센터에서 미등록 아동이랑 위기 가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센터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면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희망씨에 의뢰되는 가정이 산재 지원과 관련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에 의뢰할 수 있게 되기도 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노동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저희한테 넘어올 수 있는 상호 피드백 과정이 있으면 좋겠죠.

송재형[녹색병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하고, '중량 건강 공동체' 같은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에 병원 차원에서 개입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녹색병원, 지역 복지관, 1차 의료 기관, 보건소, '마을넷'이라는 지역 시민단체가 모여 있어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경찰서, 소방서와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런 쪽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구청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나 체계가 있어요. 보통 피해자분들이 병원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있다는 걸 몰라요. 병원에 오면 곧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으려면 구청이나 경찰서 같은 곳과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가 필요하죠. 그런 연결이 필요하다고 봐요.

Q.

정우준: 사실 산재보험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많죠. 어떤 게 개선되면 산재 노동자들에게 좋을까요?

송재형[녹색병원]: 일단 산재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해요. 환자들에게는 산재 신청에 대한 접근성이 아직 산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저도 사실 모르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상담은 하지만, 신청을 대리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고, 입증해야 하고. 절차에 있어서 문턱이 높지요.



송재형[녹색병원]: 또 하나는 절단이나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처럼 명백한 게 아니면 (승인까지) 오래 걸려요. 승인이 되기 전에도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고, 불승인되면 치료비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지 기도 해요. 명백한 거,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산재신청제도가 불안한 구조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완할 부분이죠. 약간 사각지대 같은 게 있어요. 승인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죠. '선 보장 후 평가' 구조가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긴 했어요.

김호규[희망씨]: 아무리 산재보험 제도의 기준을 촘촘하게 세워봐야, 어차피 소외되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질병 같은 건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삶하고 노동은 떨어질 수 없고, 꺾적이 꺾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국가에서 퇴행성이냐 급성이냐 꼭 따져서 치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은선[희망씨]: 급여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해요. 보장 비율이 너무 낮고, 장애 급여와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와 같이 등급제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심리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고요.

제도 관련된 건 아니지만, 산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복지 단체나 이렇게 지역 기관을 만날 때 산재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거 산재구나' 생각이 들면 녹색병원에 연결한다든가 노동건강연대에 연결한다거나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끊임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우준: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산재 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는데, 각 단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산재 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체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서로의 고민들이 연결된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정부의 빈 영역을 시민사회가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까

지원사업 이후의 과제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인터뷰



우리에게 필요한 산재보험의 모습은 무엇이고, 지원사업에 남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3년 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산재노동자 지원 심사위원이자 연구위원장이었던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히 자리잡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Q.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3년 내내 생계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맡으셨어요. 지원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나요?

산재보험제도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어요. 저희가 찾으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자영업과 임금 노동자의 경계에서 일하는 분들, 이주 노동자, 여성노동자 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원해서 본인의 문제를 잘 말씀해주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제가 조금 놀란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 처럼 한 20년 전에 나올법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이나, 가시화가 덜 되어 있었던 농어업 및 이주노동자가 겪는 산업재해에 주목하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에는 크게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마음 속으로 ‘그래도 여기는 좀 나아졌겠지’ 내지는 ‘해결되었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옛날이랑 너무 똑같아서요.

Q. **일하다가 사고를 겪거나 병을 얻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제도가 생긴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요. 제도를 개선하려면 우리사회에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해요. 물론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과 산재보험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사회에서 지금은 '산재보험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게 곧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노동자의 무고함을 밝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하다가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이나 큰 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재보험 승인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사업주 책임 혹은 기업의 책임과 산재보험이 연계되어 있을수록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입증 책임'은 노동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해요. 보장 범위도 협소해지고요.

기업의 책임은 별도로 묻고, 산재보험은 기업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산재보험이 일하다 다치고 아픈 노동자에게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어요.

산업재해 발생 자체에 불평등이 있다는 건 뚜렷한 사실이에요. 산업재해를 겪기 이전부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일수록 산재보험제도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죠. 일단, 이번에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했던 것처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하게 보여 주는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보장성이 안 좋다', '접근성이 낮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전달하는 거죠.

Q. **그러려면 시민사회나 연구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재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걸 알려야 해요. 사실 산업재해는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요. 소설이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놓쳤거나,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산업재해가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어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거죠.



Q.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재보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노동자가 힘들게 정보를 찾아서 신청서를 내고, 증거를 모으고, 상환을 받고 이런 절차 없이 산재보험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알아서 처리되어야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산재보험인지 건강보험인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게 좋은 거니까요. 중국 요순시절에는 태평성대하여 백성들이 왕이 있는 줄 모를 정도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산재보험이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히 자리잡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언론 속 지원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사업과 산재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기획했습니다. 그 결과 경향신문, 시사인, 오마이뉴스, 한겨레21 등 다양한 언론에 지원사업과 관련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2019	2020	2020	2020	2021	2021		
<p>4.28 한겨레21/1260호 산재노동자 지원금 신청하세요~</p>	<p>10.28 한겨레21/제1285호 늙었다 일한다 다친다 가난하다</p> 	<p>1.31 한겨레21/1298호 산재은폐 기획</p> 	<p>☞ 은폐된 289억 3288만원 ☞ 막히고 또 막히고 ... 산재 노동자 20명 심층인터뷰 ☞ 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인터뷰 ☞ 산재보험, 594개 사업장에서 265만개로</p>	<p>2.8 한겨레21/제1299호 평범한 비극</p> 	<p>5.26 매일노동뉴스 산재신청에 해고 협박? "생계비 지원 받으세요"</p>	<p>6.1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심층인터뷰 보니' 재해노동자 산재신청은 커녕 소송당하고 해고 협박받아 ...</p>	
<p>2020</p>	<p>7.11 경향 '침침산중' 산재 신청, 피해 입증도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나흘로 긴 싸움</p>	<p>8.14 시사인/673호 근로복지공단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의 사연</p>	<p>9.7 민중의소리 스스로 세상 등진 산재 노동자 비율, 경제활동인구보다 2배 높다</p>	<p>2021</p>	<p>9.21 매일노동뉴스 고객 중심적이지 않은 산재 실무행정</p>	<p>5.31 오마이뉴스 불평등한 산재보험, 더 넓고 평등해져야 합니다</p>	<p>9.22 시사인/730호 이주노동자의 눈물로 길러진 한국의 '쇼핑템 1위'</p>
<p>2021</p>	<p>10.3 한겨레21/제1382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p> 	<p>10.17 시사인/734호, 프리스타일 돈 많이 벌면 권리를 빼앗아도 되나요?</p>	<p>12.18 한겨레21/1392호 다리를 절단했다, 역도 '무제한 체급'으로 몸을 만들었다</p> 				

2. 김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 어업노동자 취재기

글 박한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1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불가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어업 노동자와 돌봄노동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8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순천·고흥 지역을 돌며 들은 어업노동자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힘하고 고되기로 정평이 난 바닷일이지만, 어업노동자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140명의 어업노동자가 사망하고, 하루 평균 1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합니다. 해당 통계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어업노동자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부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업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원양어선에 적용되지 않고, 3톤 미만 어선은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어업노동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어업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일하거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노동자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많이 다치고, 죽지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21년도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어업노동자에 중점을 둔 이유입니다.

고흥지역 김 양식장 방문, 양식장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

한국 밥상에서 친숙한 김. 전국 김 생산량의 70%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방문한 고흥에서 생산하는 김은 일본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아 2020년에는 수출액 14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김을 생산하는 어업 노동자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입니다. 고된 업무환경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 중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에서 입국하는데, 이번 취재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역시 모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업노동자가 직접 말하는 일하는 환경, 일하다 다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

어업 이주노동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 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 선원제도(E-10비자) 중 하나를 취득하여 입국합니다. ●●씨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등록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통영에서 탄 통발잡이 배에 한국인은 선주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이주노동자였습니다. 배에서 생활하며 하루 중 두 세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일하며 보내고 8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배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도 사장은 외상이 없으니 약을 사 먹으면 괜찮다며 ●●씨를 방치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강도의 업무가 이어지자 도망을 나왔습니다. 무릎 통증을 계속 느끼던 그는 순천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대구의료원의 이주노동자 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0여만 원을 자비로 부담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씨 역시 등록 이주노동자로 인천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배에서 줄을 돌리는 기계인 앙망기에 손이 끼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바다에선 부상자가 발생하면 작업을 중단하고 항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항구로 가는 다른 배를 기다립니다. ◆◆씨도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이 지나야 항구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비를 비롯한 병원비를 선주가 부담했지만, 손에 장애가 남은 것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나는 걸 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는 비슷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많지만, 보통 본인이 알아서 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양식일 장시간노동, 화학약품 노출 등, 배 수리까지 도맡아 사고위험은 여전해...

김 양식에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어촌계장 ▲▲씨에 따르면, 성수기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멀지 않은 바다에 위치한 양식장에 나가 4~5시간 머물며 일한 뒤 육지로 돌아와 손질 및 정리작업을 한 뒤 퇴근한다고 합니다. 다른 어획작업에 비하면 바다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육지로 퇴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흥 나로도에서는 가구당 서너 명의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니 수요도 많습니다. 각기 다른 어촌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사고를 겪은 뒤 고흥으로 이동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김 양식일이라고 해서 마냥 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성수기에 하루 13~15시간씩 일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데다가, 김을 양식할 때 사용하는 각종 화학약품에 노출되기 쉽고, 적은 시간이어도 배를 타고 작업하기 때문에 어선원이 겪을 수 있는 각종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사인

어업 이주노동자,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 받지 못해...

●● 씨는 다른 이주노동자에 비해 늦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장어를 잡는 배에서 일했는데, 선주가 배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그도 새로운 선주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선주가 바뀐 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부산을 벗어나 친구의 소개로 나로도 와서 김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사고는 배를 수리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도 선주는 용접 작업을 지시했고, ●● 씨는 안전 장비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붙이는 약으로 해결하다가 순천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이 다쳐도 계속 일하고, '불법체류자'로 일컬어지는 미등록 상태가 되어서라도 일을 계속 하는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때조차 많게는 1인당 1천여 만 원을 담당업체에 지불합니다. 이때 드

는 비용 외에도 중간업체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많아서 입국하고 나서 몇 년 간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120만 원을 받으면 노동자가 실제로 받는 월급은 60~80만 원 남짓입니다. 많게는 절반가량을 중개업체에서 가져가고, 각종 수수료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비자 기간이 종료되면 절차를 밟아 본국에 갔다가 재입국하는 비용 역시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상태로 일하게끔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양식 비수기에는 고용 불안정, 돌아다니며 일하다가 사고 겪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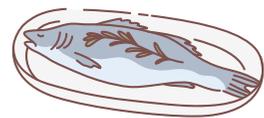
김 양식 비수기가 되면 성수기보다 짧게 일하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장비를 손봅니다. 일이 많지 않으니 가구당 고용하는 이주노동자도 한두 명 수준입니다. 시기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자가 가구당 최대 세 명까지 차이가 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별로 필요한 인원에 차이가 커서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비수기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일부러 찾기도 합니다. 즉,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여도 선주의 마음에 드는 노동자는 비수기에도 같은 곳에 머물며 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비수기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프거나 다쳐도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일하거나, 고용되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비수기에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씨는 김 양식 비수기에 순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절단 사고를 겪었습니다. 기계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했는데, 빨리 작업하라는 독촉에 한 번에 여러 개를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온 뒤 겪은 네 번째 사고였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 290만 원 정도를 직접 부담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인 △△ 씨에게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천이주민지원센터의 수녀님은 당시 건설 현장 담당자가 △△ 씨를 조기 퇴원시키려고 했던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사인

“
 법을 어긴 사람들이 노동해서 얻은 생산물이
 밥상에 올라온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



어업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여쭙보자 순천이주민지원센터의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노동해서 얻은 생산물이 밥상에 올라온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밥상에 오르는 김은 어업노동자가 일한 결과입니다. 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다 사고를 겪고도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아픈 상태로 일한 결과입니다.



어느 문 닫은 상점 길게 늘어진 카페트
 갑자기 말을 거네
 난 중동의 소녀 방 안에 갇힌 14살
 하루 1달러를 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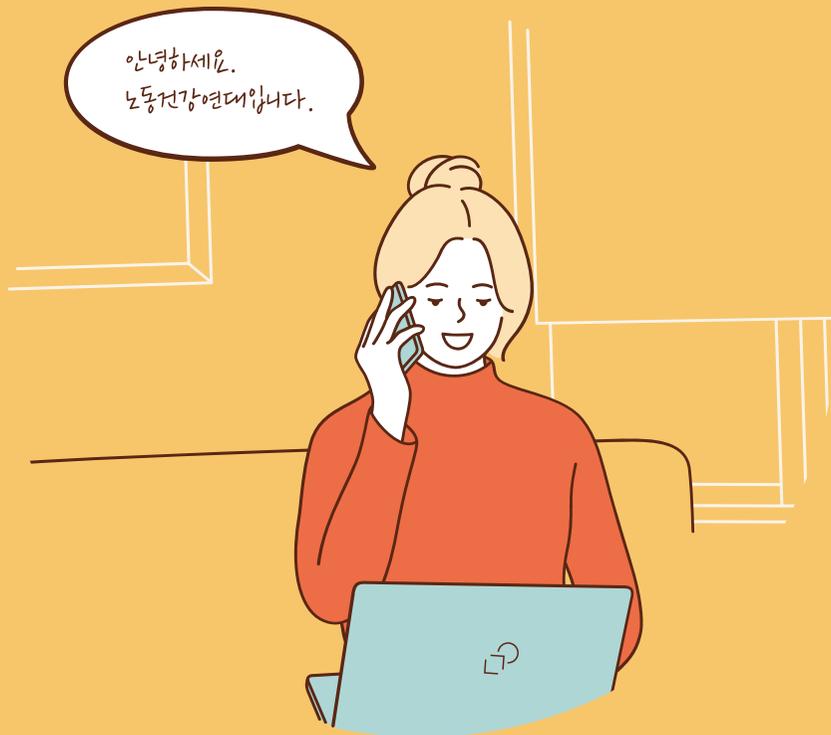
가수 루시드폴이 부른 ‘사람이었네’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게 누군가 노동한 결과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그 노동이 착취는 아니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생계와 치료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산재보험이 바뀌어야 하는 지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에서 어업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금이나마 알려졌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업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해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3. 산재노동자 전화 인터뷰

3년의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1년 12월, 생계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으셨던 176명의 노동자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뒤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산재보상 신청 관련 정보가 부족해 신청을 포기하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방해를 견디며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고, 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린 분도 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한 61명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1. 산재노동자가 말하는 산재보험

부족한 설명

용접공 (71세)

“ 산재 신청할 때 몇 번 갔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안 된다고만 하고, 힘 없는 사람은 도움 못 받는다니깐요. ”

목수 (50세)

“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다친 현장에 책임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제대로 했으면 (급여를) 훨씬 많이 받았을 텐데, 급여신청을 잘못했더라고요.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밖에 못 받았어요. ”

어려운 증명

도장공 (53세)

“ 산재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일을 늦게 시작해서 눈치 안 보이려고 페인트 두말씩 들고 일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라고. 10년 전 직업 물어보고. 그런 게 불편했죠. ”

렉카운전 (33세)

“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해요. 산재 기준점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간병비 기준도 이상해요. 새벽에 일하다 다친 건데, 일하다 다친 건지 놀다가 다친 건지 증명을 하라고 해서,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

IT 엔지니어 (43세)

“ '증거가 없으면 사실도 없다' 이런 태도가 좀 힘들었어요. ”

회사의 비협조

생산직 노동자 (44세)

“ 회사에서 '일용직은 산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어려웠어요.”

요양보호사 (50세)

“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회사에서는 등한시하고.”

사무직 노동자 (36세)

“ 회사가 산재신청 할 때 도와주지 않았죠. '자작극이다', '개인적 질환이다' 이런 내용을 공단에 보내서 방해했어요. 산재 신청 할 때 징계위에 세 번 회부되고 그랬어요.”

제조업 노동자 (60세)

“ 회사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산재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기계 오작동이 아니게끔 해라'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사실대로 할 거다' 했으니까.”

건설업 자재관리 담당 노동자 (40세)

“ 회사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했던 게 힘들었죠. 퇴사 처리될 거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복잡한 절차

청소 노동자 (68세)

“ 치료에 전념하지 못하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정보 모아서) 신청했어요.”

요양보호사 (61세)

“ 혼자서 신청을 하기엔 부담스럽고 어려웠어요. 옆에서 산재 처리하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밀고 나가겠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요양보호사 (61세)

“ 몸은 아픈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긴 심사시간

산업로봇 제조업 노동자 (45세)

“ 산재 신청 했을 때 이게 산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동안 좀 힘들었죠.”

제조업 노동자 (56세)

“ 산재 승인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경제적,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5-6개월 걸렸으니까 그동안 소득 없이 지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IT 엔지니어 (43세)

“ 산재처리 기간이 신청부터 승인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려서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족한

급여액 및
보장 기간

기계관리직 노동자 (55세)

“ 간병인을 24시간 써야 해서 인건비가 하루에 11만 원 드는데, 산재에선 4만 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로 물어보는데도, 근거를 얘기해주지도 않고. 모르는 거 있으면 잘 가르쳐 주고 해야 하는데,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니까. 아픈 환자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요.”

산업로봇 제조업 노동자 (45세)

“ 지금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끊길까봐 항상 불안해요.”

불충분한

보장 범위

주차타워 수리 노동자 (48세)

“ 치료하면서 약을 많이 먹어서 간이랑 위에 무리가 왔는데, 이걸 산재가 안 되니까 개인 의료보험으로 또 치료받고 있어요.”

#2. 지원사업이 전한 작은 위로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에서 진행한 생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산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그 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나온 답변을 모아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했었어요
해서 동료
 혼자
 계시는데

아슬아슬하게
 기억이
 비용이 지원
 도움
어머니
 이런
 일을
 받고

평원비가
다행이죠
 평원비가
 요긴하게
 쓰였어요
도움이
 정말
 큰
 도움
 받았습니다

필요한데
이 지원
 받았는데
됐죠
 됐어요
인정
 받았는데
 기관이
 생활에
 저한테는
 큰
 도움
 됐어요

워드클라우드

인터뷰 답변 중 일부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지면에 다 실지는 못했지만, 전화인터뷰에 응해주신
 61명의 노동자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 이런 기관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돈보다도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도와려고 하는 기관이 있구나’, ‘우리 편에 서주는 기관이 있구나’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도 했어요. ”

“ 아휴, 그걸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같이 혼자 살고, 제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죠. 감사했습니다. ”

“ 당시에 소송이 세 개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원받은 돈을 소송비용과 생활비로 요긴하게 썼어요.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

“ 당연히 도움이 됐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인터뷰)도 하는 거예요. 하면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

“ 이거 안 됐으면 제가 진짜 막막 했을 거예요. 산재보험금은 제 돈 먼저 쓰고 나중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바로 지급 되는 거니까요. 노동건강연대 사업이 더 확대돼야 돼요. ”

“ 굉장히 도움이 됐죠.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금액이나 대상자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산재 환자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

“ 기댈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아픈 걸 심하게 증명해야 하거나, 행정 절차가 있는 게 아니어서 좋았어요. ”

“ 도움이 엄청 됐어요. 진짜. 너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

“ 생각도 안 했던 부분에서 지원금이 나온 거라서 도움된 게 컸죠.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지원 사업이 좀 많이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 지원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병원비로 잘 썼거든요. ”

“ 관리비도 밀려 있고, 아슬아슬하게 쫓겨날 것 같았는데, 지원해 주셔서 잘 썼어요. ”

“ 조금 보탬이 됐고,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실비 보험을 해도 사측에서 는 돈 10만 원도 안 해줬는데. 덕분에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



4.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1기를 마치며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인터뷰



“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해야 해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그 역할을 계속 함께 하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하고, 다친 후에도 평등하게 치료 받고 생계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963년,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 등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산재보험이 제정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지요. 하지만 10명 중 4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겨도 치료와 생계를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이 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대표를 만나 지원사업 1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Q.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겨도 산재보험을 이용하기 어려운가요?

한국 산재보험제도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산재보험이 지향하는 가치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하고, 빨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예요. 일 때문에 아프게 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산재보험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한국 산재보험제도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삼다보니, 제도에서 빠지게 되는 노동자가 많거든요. 분명히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Q.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모든 일하는 사람중에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근로자로 인정된 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예요. 한국의 산재보험은 장벽이 너무 높아요.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장벽이 낮아야지 필요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용하기 힘들고 복잡한 제도일수록, 사회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거죠.

행정 절차도 관료적이고, 딱딱하죠. 게다가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하는 걸 꺼리니 신청하고 싶은 노동자들도 덩달아 사업주 눈치를 보아야 하죠. 이런 점들이 산재보험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나 공평히 누려야 하는데, 현재 산재보험은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더 어렵거든요.

Q.

정작 필요한 노동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인데도 산재보험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건강보험제도를 축소하겠다고거나,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큰일이 날 거예요. 반면에 산재보험제도는 문제가 많은데도 사회적으로 논쟁이나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힘이 크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면서 적은 재정을 투입해서 최소한의 효과를 내는 일종의 장식형 제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를 널리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건강연대가 아름다운재단과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노동자들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밝히고, 노동자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Q.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나요?

제도가 있더라도,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했어요.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로나 이유를 밝히려고 한 거죠. 동시에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사회에 제시하고 싶었고요.

Q.

그런 점에서 3년 간의 지원사업을 평가하신다면요?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산재 노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자영업과 임금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분들, 고령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그런 분들이 본인들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주셨어요.

지원사업 덕분에 찾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죠. 그 사례가 있었기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산재보험제도에 비어 있는 부분을 밝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Q.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죠?

어느 주제든 그렇겠지만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도를 둘러싼 여러 결의 지향이 있어요.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산재보험 개혁이라는 측면이 있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거나, 노동자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서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야기할 수도 있죠.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시작할 땐 하나의 사업에서 세 가지를 다 담으려고 하다가 초반에 좀 헤맸어요. 꼭지를 잘 잡고 하나만 제대로 하기에 힘든 주제들이니까요. (웃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방향은 재단과 저희가 소통하면서 찾아 나갔어요. 사업 2년 차까지는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3년 차에는 사람들이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했죠. 일종의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Q.

앞으로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산재 노동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야 해요. 산업재해는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더 위험한 일 혹은 새롭게 생겨난 위험을 잘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요. 플랫폼 노동처럼 새롭게 등장한 산업에서 벌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죠. 사실, 플랫폼 노동은 굉장히 빠르게 의제화가 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 전통적인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아픈 부분이죠.

앞으로도 이런 산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알려서, 사람들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제도에 얽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활동이 메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그 역할을 계속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 지원사업의 의미와 제언

더 많은 사람이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한다면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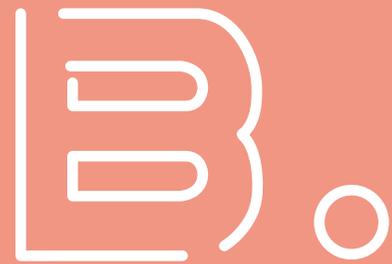


산재보험은 한국의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색은 찾아보기 힘들지요. 한국에서 산업재해는 매우 한정된, 특수한 집단의 문제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산업재해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걸 방해합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물음에 답하며, 산업재해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지지 않는 현실에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3년 동안 본 사업을 통해 176명의 노동자를 지원하였고, 지원 과정에서 산재노동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만화, 영상, 매거진 등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제도가 지닌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자가 제도에서 소외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말하고자 했습니다.

산재보험제도에 비어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찾으려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본 지난 3년이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이유를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1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한다면, 산재노동자가 겪는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록 : 한국 산업재해와 산재보험 현황

2011-2020 산업재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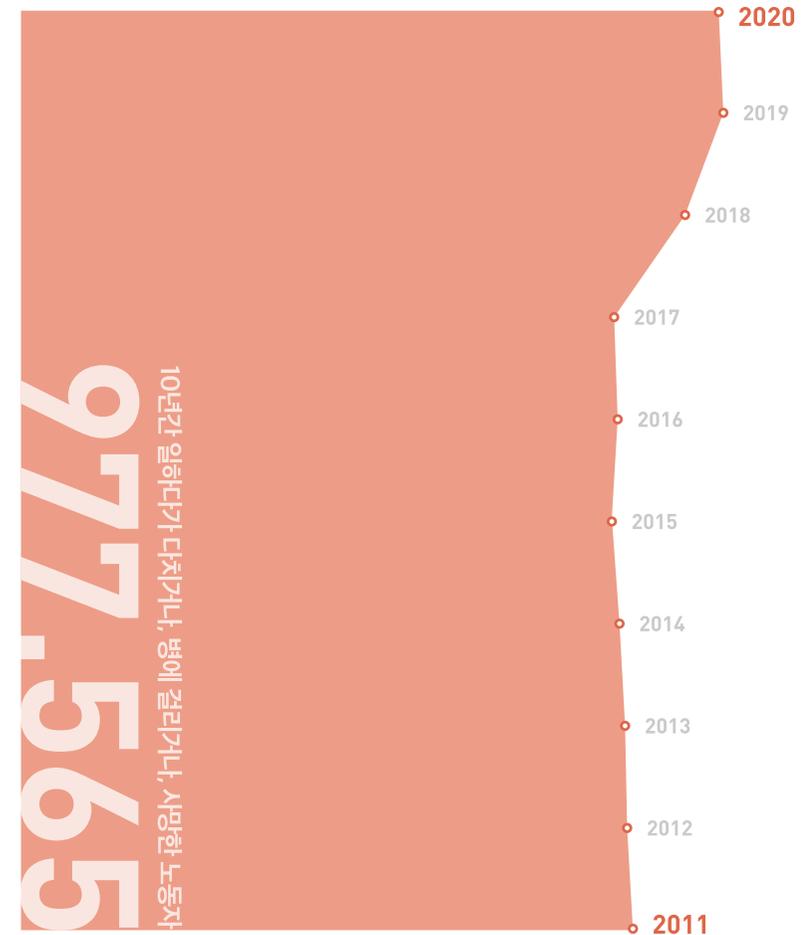
산재보험 바깥의 노동자들

2011-2020 산업재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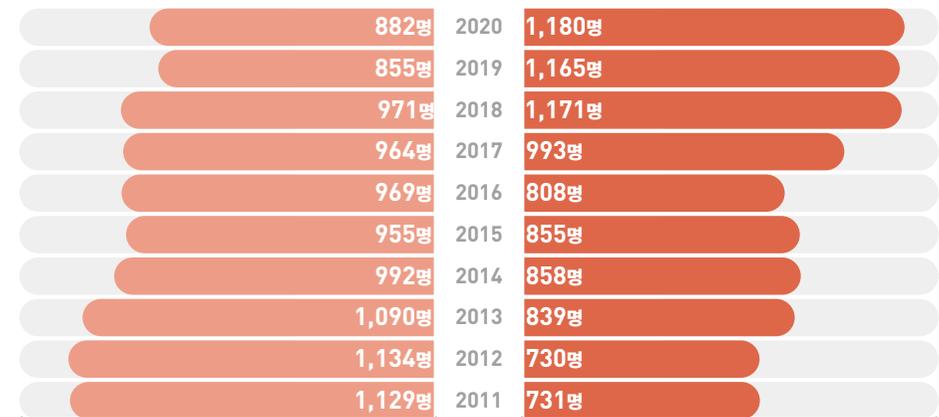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일 정도로 우리의 삶과 노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설처럼 느껴지지만, 노동이 우리를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는 일은 드문 사건이 아닙니다.

매년 약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산재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고 있을 겁니다.



10년간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노동자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산재보험 바깥의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산업재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분명, 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과 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하다 보면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산업재해의 결과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이다”

- 산업재해 관련 법원 판결문 중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곳보다 특히 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지요. 그래서 국가는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일터의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어서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건강보험제도처럼 말이지요.



42.4%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구 방지 방안 연구(2018)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42.4%입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 열 명 중에서 네 명이 산재보험제도로 치료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이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진행한 이유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8년 창립된 **노동과건강연구회**를 전신으로 하여, 2001년에 지금의 **노동건강연대**가 창립되었고, 2021년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업이나 정부의 후원을 받지 않고, 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2. 2. 23.
발행처 노동건강연대
디자인 모야간에 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상상청 303호
연락처 02) 469 3976

기획 노동건강연대
편집 박한솔

발행처의 허락없이 책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무단복사, 복제, 전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성과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2021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산재보상 시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노동건강연대
Solidarity for Worker's Health

